2024
Vol.2

해 양 수 산
ODA 리포트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지 26
발 행 인	김종덕
담 당	전혜은, 허재영, 김주형, 한다정, 이민정, 임해주, 김양희, 차보민, 이보람
감 수	한덕훈
전화번호	051-797-4904 / 051-797-4415
E-mail	hjy1@kmi.re.kr / 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2024년 7월

CONTENTS

① 국제개발협력 동향 | ② SDGs 관련 국제 동향 | ③ 전문가 칼럼 | ④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⑤ 주요 행사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1 국제개발협력 동향

EU

EU, 이집트에 3년간 74억 유로 지원[1)]

- 유럽연합(EU)이 이집트 정부에 3년간 74억 유로(약 10조 7,000억 원)를 지원하는 원조 통합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집트의 경제난과 주변국의 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Ursula von der Leyen) 및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정상으로 구성된 EU 대표단은 이집트 대통령(Abdel Fattah al-Sisi)과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내용에는 안보, 재생에너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이집트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해당 원조 패키지에는 이집트에 향후 3년간 74억유로 상당의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금은 양허성 차관 50억유로(약 7조3000억원)와 투자 18억유로(약 2조6000억원), 보조금 6억유로(약 8700억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보조금에는 이주민 문제 대응을 위한 2억유로(3000억원)가 포함됐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EU와 이집트 간의 관계를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무역과 투자에서 저탄소 에너지, 이주 관리, 교육, 문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 한편 EU는 튀니지, 모리타니와도 지중해를 통한 이주민 유입 방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파트너십도 맺었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에 이주민 억제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 이주민 탄압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제앰네스티 유럽 책임자(Eve Geddie)는 "EU 지도부는 이집트 당국이 명확한 인권 기준을 확실히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1) 중동국제뉴스(AL MONITOR)보도자료, https://www.al-monitor.com/originals/2024/03/eu-and-egypt-sign-74-bn-euro-deal-focussed-energy-migration 2024. 03.17.(접속일: 2024.06.26.)

JICA

일본, 인도 ODA 차관협정 체결[2)]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023년 12월 21일, 기술협력 프로젝트 '뭄바이-아마다바드 고속철도 프로젝트(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Mumbai-Ahmedabad High Speed Rail)'와 관련하여 인도 정부와 4억 1,501만 엔(약 36억 원)의 일본 ODA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간 약 500㎞ 구간에 일본 신칸센 스타일의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것이다.
- 동 고속도로의 길이는 약 500km 이며 뭄바이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를 잇게 된다. 이동시간은 기존 약 7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며 교통망 효율화와 광범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역 내 교통망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대상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9(산업, 혁신 및 인프라),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3(기후 행동)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OXFAM

OXFAM, 세계 상위 1%의 부유층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 차지[3)]

-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23년 20일 보고서(Climate Equality: A planet for the 99%)에서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7천 700만 명이 하위 66%에 해당하는 50억여 명과 맞먹는 양의 탄소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과제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의 공동 저자(Max Lawson)가 강조했다.
- 옥스팜은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 추세가 이어지면 2020년~2030년 사이 기후변화 등 문제로 사망하는 이들이 13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 JICA 보도자료, https://www.jica.go.jp/english/information/press/2023/20231222_30.html(접속일: 2024.06.25.)
3) 옥스팜 보도자료, https://policy-practice.oxfam.org/resources/climate-equality-a-planet-for-the-99-621551/ (접속일: 2024.07.01.)

- 또한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 홍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유색인종, 선주민, 소외계층 등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 옥스팜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옥스팜 인터내셔널 임시 총재(Amitabh Behar)는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 도입은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모두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역동적인 21세기 친환경 정부에 투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다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World Bank

세계은행, 동남부 아프리카에 지역 기후탄력성 프로그램 실시[4)]

-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강우와 홍수는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인적 피해와 경제적, 농업적 손실을 초래했다. 극심한 더위가 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 기후정책이니셔티브(Climate Policy Initiative)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아프리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12%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매년 2,500억 달러(334조원)가 필요하지만, 2020년에는 295억 달러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세계은행 말라위 관리자(Hugh Riddell)는 "말라위는 지난 50년 동안 19번의 대규모 홍수와 8번의 심각한 가뭄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말라위 국민들이 빈곤에 빠졌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지역 기후탄력성 프로그램(2억 4천만 달러 제공)을 통한 인프라 지원, 재난 위험 관리 및 사회 보호 시스템 개선 등으로 약 200만 명의 동남부 아프리카 국민들이 홍수를 비롯한 물 관련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4) 세계은행 보도자료,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3/12/20/two-million-people-afe-to-be-protected-from-water-related-climate-shocks-and-flooding-in-eastern-and-southern-africa. 2023. 12. 20. (접속일: 2024.07.01.)

2 SDGs 관련 국제 동향

IMO

IMO, 탈탄소화 주도 선박 화석연료 사용 줄이고 2027년 해운 탄소세 도입 예정[1)]

- **(동향)** 국제해사기구(IMO)는 2024년 3월 22일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서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초안(IMO Net-Zero Framework)'에 합의했다.[2)]
  - 작년 7월 IMO는 2050년까지는 최소 온실가스 70%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IMO 2030 온실가스 전략(IMO 2030 GHG Strategy)*'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 IMO 2030 GHG Strategy: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모습

1) IMO 보도자료 https://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ages/MEPC-81.aspx 2024.03.22.(접속일: 2024.07.02.)
2) IMO 보도자료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IMO-agrees-possible-outline-for-net-zero-framework.aspx (접속일: 2024.07.03.)

- **(배경)**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작년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 2024년 3월 18일~22일 기간 국제사기구(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IMO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는 170여 회원국,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대표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표준제(GFS, GHG Fuel Standard)'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a new global pricing mechanism for maritime GHG emission)'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대립됐다.
- **(주요 내용)** 이번 81차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해양 쓰레기 및 화물 유실 보고 의무화에 관한 내용 등을 논의 및 결의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선박의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 표준제도(Goal-based Marine Fuel Standard)*를 포함했다. 즉 선박연료 전 과정 배출량을 고려한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연로 표준제도(GFS, GHG Fuel Standard): 선박의 연간 연료유 사용 기준 각기 다른 연료의 특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수립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 (에너지효율)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 개발을 위한 2022년 지침(2022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Ship Energy Efficiency)과 선박연료 소모량 검증을 위한 지침의 2024 개정안을 채택했다
  - (해양 쓰레기)화물 컨테이너 유실과 관련된 모든 선박의 선장은 인근 선박, 가장 가까운 연안국 혹은 선박의 기국에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되는 내용도 반영됐다.
- **(정책시사점)** 조선 해운 사업에 강력한 국제규제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선제적 종합적 대응방안이 필요해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자 무역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번 IMO 규제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조선 해운 산업에 강력한 규제가 예고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대체연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FAO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Blue Port Initiative, BPI) 프로그램 적극 추진 중[3)]

- **(개요)**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어항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어항 및 해양 인프라를 보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성장을 촉진·강화하는 역할을 도모하는 이니셔티브이다.
- **(목표 및 주요 내용)** 주요 목표는 해양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성 강화, 경제적 발전 촉진 등 3가지이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 (해양 환경 보호) 폐기물 관리, 오염 방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어족 자원 보호 등 포함한 어항 관련 인프라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해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사회적 포용성 강화) 어촌 및 연안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어민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을 촉진하며, 양질의 노동 관행을 준수하여 결국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제고한다.
  - (경제적 발전 촉진) 어항 관련 산업의 경제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증진시켜 지역 사회에서의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어촌어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
- **(동향)** 2019년 FAO 수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연안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 지역기구 전문가의 참여 속에서 아프리카, 아세안 지역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서 국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어항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방향을 토의하고 제시하여 지역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2023년 청색 어항 구현을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를 FAO에서 도출하였으며, 개발도상국만이 아닌 선진국에서도 어항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해양 관광과 함께 어항 경제 발전 특구와 연결하여 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재조명한다.
  - 2023년 11월 모로코 탕헤르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역 워크숍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2024년 4월 중국 팡첸강에서 아세안 워크숍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개최되어 각 지역 특화적인 어항의 발전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 토의하였다. 이를 통해 24년 말까지 각 지역 특화적인 아세안 청색 어항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공동작업 중이다.[4)]

3)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자료 https://www.fao.org/in-action/blue-ports-initiative/about/en (접속일 : 2024. 6. 18.)
4) KMI 대외협력사업부는 2023년 청색어항 로드맵과 가이드 도출에 기여하였고, 아프리카, 아세안 등 각 지역별 워크숍 및 전문가 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적극 참여 및 기여하고 있음

- 2024년 6월 현재, 모로코, 베트남, 스페인, 아르헨티나, 페루, 태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등 총 18개국이 참여 중이며, EU, UNESCO, IMO, ILO 등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이에 적극 참여 중이다.

• **(정책시사점)** FAO의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원 보호, 지역사회 발전, 국제 협력 강화를 공동 추진하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글로벌 문제 해결과 범지구적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FAO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사료된다.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화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 이어갈 가치 있는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도출된 글로벌 로드맵과 지역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의 정책 입안과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임해주 연구원/ 한덕훈 연구위원
hj@kmi.re.kr

3 전문가 칼럼

강상진 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유라시아부 유라시아·중동팀장

조화와 경쟁: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유상차관 지원 규모 또한 2023년 3.8조원 승인과 1.4조원 집행이라는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한국의 유상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이제 개도국의 중요한 협력파트너이자 한국기업의 개도국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이 헤쳐 나가야 할 개발협력 환경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 일본 등 전통적 공여국들조차 ODA와 자국의 대외전략(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을 연계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이자 EDCF 상위 협력국이었던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은 소득 수준 향상과 자국 기업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구속성 원조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많은 자원과 인구 잠재력으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중국의 물량공세와 주요사업 선점, 지리적 불리함과 불안한 정치 상황 등 극복해야 할 리스크가 여전히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수원국에서 공여국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한국의 EDCF가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한국기업과 인력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 개발협력 방식의 변화 – 수원국 주도의 개발협력 강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발협력 방식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강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제 개발협력의 무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수원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만을 고집한다면, 소리없는 전쟁과 같은 개발협력의 경쟁에서 도태될 뿐이다. 공여국 중심의 개발전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수원국이 현지주도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현지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

수원국 주도의 개발협력은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현지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수원국의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여국 중심의 전략보다 현지 필요에 부합하고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요즘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지역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잘 아는 현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일 수 있다.

또한, 수원국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은 현지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자원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과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원국은 자립적인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 분야에서 현지 교사와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투입하거나 일회성 초청 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과 AI기술의 발달로 수원국 공무원들도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개발협력은 현지 상황에 맞춘 전략 수립, 현지 전문성의 적극적 활용, 빠르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원국 주도 개발방식과 효과적으로 공조하는 공여국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DCF는 이 새로운 개발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개발협력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들의 EDCF 사무소의 인력과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새로운 환경과 방식의 성공 사례 - 한국의 TGV와 우즈베키스탄의 KTX

오래전 사례이긴 하지만 한국이 고속철도 사업을 성공시킨 것은 한국이 그 당시 어려웠던 상황에도 이미 주도적인 개발협력을 실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여기 소개해 본다.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이지만, 얼마전(2010년대)까지만 해도 당연한 표현인 것처럼 들렸던 “한국이 개도국이던 시절”인 1990년대에 한국은 국내 고속철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업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을 개도국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한국 또한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 TGV, 독일 ICE 및 스페인의 AVE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며 한국의 지형에 맞고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 및 금융조건을 제시하는 국가의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협상과 검토를 진행했다. 일본, 프랑스, 독일이 한국에 고속철도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한국은 각국의 차량 기술과 가격뿐만이 아닌 기술이전과 금융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결국 프랑스의 TGV를 최종 선정하였다. 국가 핵심 사업중 하나였던 고속철도 사업에서 한국은 당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며 프랑스로부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었다. 프랑스의 수출신용보증기관인 COFACE가 보증하는 수출금융과 연계된 Tied Loan 형태로 약 23억불 규모의 장기 저리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한국이 일본 신칸센이나 독일 ICE가 아닌 프랑스의 TGV를 수입하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로 유명하여 역사적인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지만 전 세계에 단 두 나라 밖에 안된다는 이중 내륙국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다로 나가려면 국경을 두 번이나 건너야 하니 철도 교통의 중요성은 한국보다 오히려 더 크다. 이 것은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이 2011년 중앙아시아 최초로 스페인으로부터 고속철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4배에 달하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으면서 수도인 타슈켄트는 동쪽에,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는 중앙에, 그리고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어 관광지로 유명한 부하라와 키바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철도를 타고 이동하는 여행객의 숫자는 매우 많다. 버스와 같은 일반 교통수단으로 타슈켄트에서 키바까지 간다면 16시간 이상 하루를 꼬박 운전해야 갈 수 있다면 고속철도가 연결될 경우 그 반에 불과한 8시간 이면 도착할 수 있고, 현재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구간은 고속철도로는 2시간이면 도착하지만 차를 타면 빨라야 4시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동 구간에 투입되는 고속철도 차량이 6편성밖에 되지 않다 보니 예매를 하려면 최소 한달 전에 시도해야 겨우 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고속철도 차량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관련 부처와 기관에 지시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기존의 스페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고속철도 차량을 비교해오다가 우즈베키스탄 지형에 맞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신속하게 차량을 제작,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주도적인 고속철도 도입 계획과 협력 파트너 선택, 그리고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지원으로 답한 한국의 유상원조 차관으로 2024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KTX 고속철도 차량을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 조화와 경쟁 - 상호 발전과 협력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를 수출한 사례는 조화와 경쟁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개도국이던 한국이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고속철도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었고, 이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인프라를 혁신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또한 기존과 같은 고속철도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자국의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경제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였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도 협력은 조화로운 협력의 결과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상호보완적이고 조화로운 협력이 어떻게 두 나라의 발전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개발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경향 또한 강해지고 있는 새로운 개발협력 환경에서 조화와 경쟁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앞으로 한국과 협력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주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실행에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다른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강점과 경험을 수원국 주도의 현지 맞춤형 개발협력 전략과 연계하여 협력국의 진정한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상진 팀장

〈주요 이력〉

현) 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유라시아부 유라시아 중동팀장

전) 한국수출입은행 탄자니아부소장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한덕훈 대외협력사업부 부장 외

한-아프리카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개요

- 2024년 6월 4일~5일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6월 5일에는 한-아프리카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가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해양수산협력'을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대한민국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아프리카 장·차관급 6인, 아프리카 해양수산 관련 고위급 공무원, 국제기구 등 총 150여 명[1]이 참석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선도전략인 'Korea - Ocean Economy Initiative(K-OEI)'를 소개하고,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될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한국의 해양수산 관련 국내 두 기관, 가나, 케냐,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세 국가, 그리고 FAO 등 국제기구 한 기관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김종덕 KMI 원장의 사회로 종합 토론을 통해 협력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또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케냐 광물청색경제해사부와 수산업·어촌 및 해사 분야에서, 세이셸 수산청색경제부와 인도양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본행사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2024년 6월 4일 및 6일에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정책 성과 확산 프로그램인 BADA(Best Achievement program in oceans and fisheries oDA)[2]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 첫째 날에는 한국 해양수산 ODA 사업 소개 및 제안 절차 안내, 국별 해양수산 이슈 및 협력 어젠다 발표, 국내 해양수산 유관기관 소개 및 추진 사업 등을 발표하였다.
  - 둘째 날에는 국별 제안 사업(안)에 대한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다.

2. 한국 해양수산부 주요 발표 내용

-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 등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인 Korea

1) 아프리카 12개국(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알제리, 케냐, 탄자니아), 국제기구(FAO) 등 한국 포함 총 13개국 이상 참석
2) 수원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강의, 현장 견학 등을 제공하고 해양과학, 수산양식 등 국내 전문적 유관기관과 매칭 후 수원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요 기반 ODA 사업을 발굴하도록 체계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임

- Ocean Economy Initiative(K-OEI)를 제시하였으며, 해양의 중요성과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개최를 25년 4월 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 하에 ▲기후위기 대응(녹색 해운, 해양기후변화연구, 블루카본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IUU 근절, 수산시설 현대화 등) ▲해양환경 보전(해양쓰레기 관리, 친환경 관광, 해양보호구역 조성 등) ▲인재 양성(수산 박사과정, 국제옵서버, 여성해기사 양성 등) 등 해양수산 국제협력 4대 전략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글로벌 차원에서의 연대와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별 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기구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주요 토론 내용

가. 한-아프리카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 아프리카 3개국, 국내 2개 기관, 국제기구 1개 기관 등 대표 6명의 패널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양수산 협력을 주제로 1) 해양수산 현안 2) 미래비전 및 목표 3) 협력 가능 분야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에서는 IUU 어업, 남획, 해양오염 등이 수산자원의 고갈과 생물다양성 감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 밝히며, 수산법 제개정,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수산기술 연구, 수산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해 한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희망하였다.
  - 기니비사우 수산해양경제부에서는 선진 해양환경조사 기술과 수산자원의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산업용 어항 및 저장가공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수산기술 역량 강화, 영세어업인 역량 강화 등을 한국과 협력 필요 분야로 제시하였다.
  - 케냐 광물청색경제해사부에서는 IUU 근절이 도전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및 생태계 관리, 기후변화 대응, 인적 자원 개발 등 다방면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산양식, 해양과학, 관상어양식, 연안재해 대응기술, 인공위성 활용 먼바다 관측 및 영향연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 소개하며, 아프리카 맞춤형 수산양식, 연안재해 대응, 인공위성 활용 해양관측 기술 이전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60년 역사를 가진 선박 승무원 교육기관으로 아프리카 국가 대상 승선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교수 및 교관 대상 선원교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국제 협력을 기대하였다.
  - FAO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어종관리, 수산정책 및 법제화, IUU 근절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증진 사업을 Blue Transformation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쌀 농업-수산양식 연계사업과 같은 저비용 저기술의 양식기술 전수,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 대응,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BADA 프로그램

- 아프리카 7개국 참석자는 국별 해양수산 이슈와 협력 어젠다 발표를 하였다.
  - 알제리에서 연안 수산업은 주요 산업임을 강조하며, 새우 양식 교육과 인력 양성, 양식업 대상 어종의 다양화, 재고와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해 한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희망하였다.
  - 가나에서 수산물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가나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 분야임을 강조하며, 새우양식장 및 양식용 어류 사료 공장 건설, 어업민 교육 기관 마련, 어구 개발, 어선 수리를 위한 조선소 건설 등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였다.
  - 기니비사우는 풍부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국가이나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어업 방식으로 영세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영세 어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 케냐는 에덴만의 해적 활동 등 안보에 취약하며, IUU 어업,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거버넌스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관리 도모, 인적자원 개발 등 협력을 희망하였다
  - 모로코는 해양환경의 변화로 상업적 어업 생산의 패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슈를 공유하며, 어업 부산물의 화장품·의학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바이오 기술 분야 협력, 어선용 그린 에너지 및 저탄소 연료 개발 등 협력을 요청하였다.
  - 세네갈은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에 따른 해양수산 자원 보호 필요성을 설명하며, 양식 인프라 구축과 어항 건설 협력을 희망하였다.
  - 탄자니아에서는 남획과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IUU어업 퇴치, EEZ 어획·양식·연구 협력, 수산자원관리 및 개발, 어항 및 관련 인프라 건설에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 .

4. 결과 및 시사점

- 2024 한-아프리카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통해 한-아프리카 간의 해양수산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구체적인 어젠다를 논의하는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아프리카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또한 우리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수산업, 해양 환경 보전, 인재 양성 등 K-OEI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사업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향후에는 금번 발굴된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정례 회의인 KICCOF(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on Oceans and Fisheries)[3]와 KMI의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인 KORAFF(Korea-Africa Fisheries Forum)[4]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사업 안건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2024 한-아프리카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국별 협력 안건의 ODA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2024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안건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부처 ODA 사업으로 차년도에 제안될 예정이다.
-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와의 새로운 협력 사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개회사

K-OEI 발표

단체사진

패널 종합 토론

KMI 대외협력사업부 한덕훈 연구위원, 전혜은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한다정 연구원, 임해주 연구원, 차보민 전문사무원

hj@kmi.re.kr

3) KICCOF 개최 현황 : 스페인 라스팔마스('14), 피지('15), 인도('16), 케냐('18), 미얀마('19), 한국('21), 피지('22), 한국 부산('23)
4) KORAFF 개최 현황 : 남아공 케이프타운('10), 한국('10), 앙골라 루안다('11), 가나 아크라('12), 세네갈 다카('13), 스페인 라스팔마스('14), 코트디부아르 아비장('19). 한국('21), 탄자니아 잔지바르('23), 알제리 알제('24)

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인도네시아

인니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 사업 목적

-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한 연안재해의 피해저감과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해 통합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설립 및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 과학기술 역량강화

● 사업 내용

-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및 관계기관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센터설립, 기자재 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통합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면적 703.74㎡)
- 인니 지역별 석사급 전문가 양성과정 설계 및 운영(총240명, 연 40명×6년)
- 한국초청 박사급 전문가 양성과정 설계 및 운영(총22명, '23:2명, '24~'28:4명×5년)
- 조사 훈련을 위한 해양실습선(12톤급 이상 5척), 해양조사 및 분석 장비 지원

● 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2023~2028년(총 6년)
- 사업비: 75억 원(총액)

● 추진 현황('23.10~'24.6)

- 인니 해양수산인력개발청(BPPSDMKP)과 MOU 체결('23.6.6/사업전)
- 지역별 교육거점 기관 확보를 위한 인니 대학과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간 MOU 체결 ('22.7~'23.7/사업전, 보고르대, 하사누딘대, 파티무라대, 우다야나대, 디포느고로대, 가자마다대)

- 본 ODA사업 참여 및 지원 공동선언식 개최('23.8/사업전)
- 해수부 및 인니관계기관과 착수보고회 개최('23.11)
- 석·박사 역량강화과정 학생선발 전형 및 선발('23.9~'24.1)
- 석사급 해양전문가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학장급 협의회 개최('24.1)
- 특별주제 역량강화과정 개최; 고정익드론 활용, 분광스펙트럼 분석('24.1)
- 통합 교육센터 내부 및 외부 시설 마련('24.1~8)
- 제1차 인니관계기관 운영위원회 개최('24.2)
- 인니 정책결정자 및 우수학생 한국방문 프로그램 개최('24.6)
- 이행약정서(IA) 서명식 개최('24.6)

● 관련사진

본 ODA사업 참여 및 지원 공동선언식('23.8.29/사업전)

인니 관계기관과 착수보고회
('23.11.22)

석사급 해양전문가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학장급 협의회('24.1.18)

고정익드론 활용 특별주제 역량강화과정
('24.1.22~26, 비행실습)

고정익드론 활용 특별주제 역량강화과정
('24.1.22~26, 자료처리)

제1차 인니관계기관 운영위원회
('24.2.2)

분광스펙트럼 분석 특별주제 역량강화과정
('24.2.19~22)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설립 계획안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시설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 및 공사협의('24.1~현재 공사 진행중)

인니 정책결정자 및 우수학생 한국방문 프로그램('24.6.11~16, 부경대학교)

인니 정책결정자 및 우수학생 한국방문 프로그램('24.6.11~16, 수산실습선)

인니 정책결정자 및 우수학생 한국방문 프로그램('24.6.11~16, 국립수산과학원)

이행약정서(IA) 서명식 ('24.6.12)

● 향후계획('24.7~'24.8)

- 단기 기술 실습훈련 과정 개최 2회('24.7)
- 특별주제 역량강화과정 개최('24.8)
- 해양물리(ADCP) 및 해양수질(CTD) 측정장비 등 구매 및 수여('24.2~8)
- 12톤급 해양조사실습선 설계·건조 및 수여('24.4~8)
- 현지 최종보고회 및 제2차 인니관계기관 운영위원회 개최('24.8)

● 기대효과

- 아세안 협력 핵심국가인 인니와의 중장기적이고 우호적인 해양협력 강화를 위해 親韓인사 양성에 효과적인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
- 한인니해양수산기술훈련센터 시설은 한국ODA 사업 및 국제 기구의 훈련프로그램을 공동 개최를 통해, 향후 아세안 거점 훈련센터로 확대
- 해양국가인 인니의 기후변화·연안재해 대응 능력 강화 및 해양교육체계 구축에 기여하여 한국 해양수산분야 영향력 확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한산 책임연구원
hansanpark@kiost.ac.kr

조지아

조지아 해양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

● 사업 목적

- 조지아는 수로측량의 규모가 적고 해도제작 관련 기술 수준이 낮아 항행안전 확보 및 해양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 수집이 절실
- '18년 3월 조지아 측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제안, 그해 10월 한-조지아 간 항해안전 지원을 위한 수로기술 협력 MOU 체결

● 사업 개요

- 조지아 연안의 선박 항행지원, 안전항로 확보 및 항만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조사 기술 전수, 기반시설 지원 등
- 사업기간: 2020~2024년
- 사업비: 44억 원

● 사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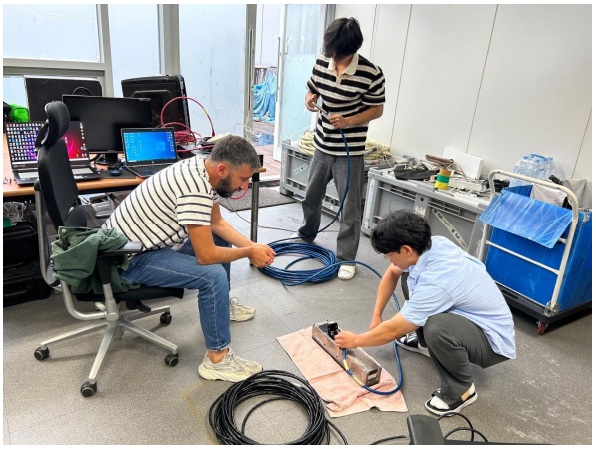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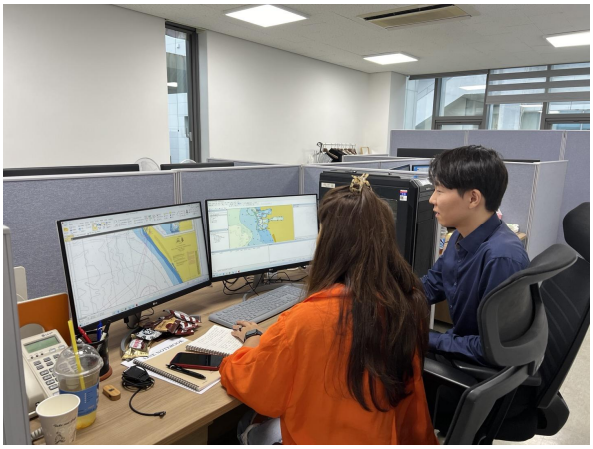
- 조지아 연안(아나클리아, 쿠레비, 포티, 바투미항 등)

조지아 연안 사업 구역

● 그간 추진현황

- 쿠레비, 바투미, 포티, 아나클리아, 숩사 해역 공동 해양조사 수행('20~'23년)
- 해도용 플로터, 다중음향측심기, 초음파 해류계 등 조사장비 공여('20~'22년)
- 포티항 해양관측소 설치, 측량·해도 품질관리 및 현지 기준 마련 연구('20년)
- 바투미항 해양관측소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시스템 구축('23년)
- 소형 수로측량 전용선박 건조 및 공여('22년), 해안선 측량을 위한 무인항공기 및 SW 공여('23년), IHO 수로측량 강사양성과정 초청(2명, '21년)
- 해도제작 프로그램 운용 교육(3명, '22년), 현장실무 국내 초청 교육(2명, '23년)

● 관련사진

해양관측 및 수로측량 분야 현장실무 교육

2022년 해양조사선 공여

● 향후계획(2024년)

- Batumi 남측 연안 해역 공동 수로측량 및 장비* 공여

  * GPS세트, Caris SW, Side Scan Sonar 및 전용 소프트웨어

- Batumi 남측 연안의 측량성과를 반영한 공동 종이·전자해도 제작
- 해양관측 역량 향상을 위한 공동 파랑관측
- Batumi 해양관측소 점검 및 장기조석관측을 통한 기본수준점 조사
- 조지아 해양관측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
- 조지아 수로국 직원 대상 방한 현장실무교육(On the Job Training) 실시
- 해양조사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료처리 기술 전수

● 기대효과

- 해양조사, 수로측량, 해도제작 등 관련 자체 기술력 강화를 통해 조지아 연안 무역 활성화, 항해 안전 확보 등에 기여

국립해양조사원 이다래 주무관
ldarae122@korea.kr

5 주요 행사

기추진 행사

제1차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국제워크숍 개요
  - (목적)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및 기술 공유로 가나 여성어업인의 자주적인 계발과 독립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성장지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4월 24일 (수) ~ 25일 (목) (2일)
  - (장소) 가나 테마 Crismon hotel

- 주최/주관,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가나 수산위원회(Fisheries Commission)
  - (참여기관)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가나 항만청, FAO 가나사무소, 스페인 라스팔마스대학교, 가나 식품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양산업협회, USAID-GFRA*, NGO(DevWorks International)

    *USAID에서 지원하는 가나 어업 복구 활동(Ghana Fisheries Recovery Activity) 이니셔티브
  - (참석인원) 총 64명 (참여기관 33명, 가나 여성어업인 31명)

제1차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 (주제) “Empowering Ghanaian Women in Fishery Sector”: Advanced Practices & Leadership in Fisheries
- (발표) Setting the Scene: Ghanaian Women in Fishery Sector International Workshop
- (강연: 세션 2) Empowering Women and Communities in Fishery Sector
- (토론) 가나 수산위원회 어획 후 관리무역부장, 스페인 라스팔마스대 교수, (전) 가나 수산위원회 부국장, 한국원양산업협회 명예해양수산관, FAO 가나사무소 어류 기술 전문가, 가나 여성어업인 대표 등 7인

● 논의 결과 및 시사점

- 수산분야의 젊은 노동력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공처리 기술을 향상시켜 꾸준한 이윤 창출이 필요
- 수산물 가공업체는 개선된 선진 가공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여성어업인 및 관련 협회가 한국의 수산물 가공 유통에 관한 모범 사례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과의 학습 교류 협력이 필요함

●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종합 만족도*) 4.93점 / 5점

  * 총 31명 만족도 조사 응답 결과 적용 가능성(5점), 워크숍 프로그램(4.98점), 전반적인 만족도(4.95점), 강의 및 강사(4.94점), 워크숍 지원(4.92점), 워크숍 환경(4.81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 (향후 교육 수요) 어획 후 관리* 및 수출 관련 교육의 수요가 있으며 손익계산 및 비지니스 개선을 위한 경영 교육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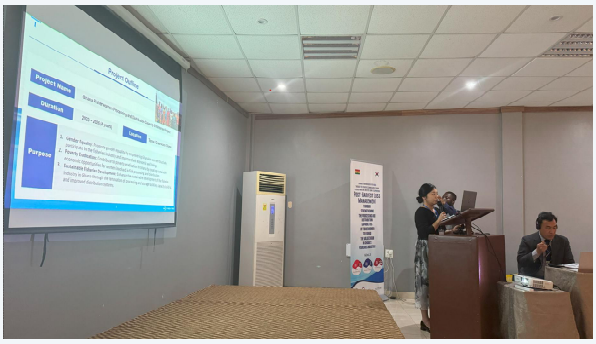
  *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

- (교육 전달 방법론) 워크숍 교육 전달을 아웃리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다양한 공동체와 다수의 지역 대상의 여성 어업인에게 교육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1차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개회사 - FC Fred Antiwi-Boadu 국장, KMI 한덕훈 부장

국제워크숍 참가자 소개



Project Progress Status and Roadmap
- KMI 전혜은 센터장 발표

Demand Survey Result for Education Program
- 스페인 라스팔마스대학교 Marisol 연구부총장

토론

국제워크숍 참석자 단체 사진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양희 연구원
yanghee.kim@kmi.re.kr

해양수산 ODA 리포트는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국내외 ODA 정책, SDGs, 국제기구, 해외정부의 동향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전혜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허재영 국제개발협력 전문연구원
김주형 국제개발협력 전문연구원
한다정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이민정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임해주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김양희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차보민 국제개발협력 전문사무원
이보람 국제개발협력 사무원

감리

한덕훈 대외협력사업부장

해 양 수 산

ODA 리포트

발행일 2024년 7월 17일
편집·발행일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용당캠퍼스 한미르관 12층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
TEL) 051-797-4904 FAX) 051-797-4415
편집디자인 애드원플러스 TEL) 070-4390-38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